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배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4.1·2
한국YWCA

이달의 생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한국YWCA

특집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이달의 현장 ①
 제18회 한·일YWCA협의회

이달의 현장 ②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출항식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승리를 보장받으며,
 그 승리로 인한 감격과 기쁨 역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에 역사하실 자리를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혹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내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역사하시도록 매순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내게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승리의 기쁨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201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진·글 /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차

- 04 이달의 생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한국YWCA | 차경애
- 05 신년예배 아담아(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 장윤재
- 06 연합회 사무총장보고 1·2월의 한국YWCA | 유상희

특집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08 한 눈에 보는 정기총회
- 09 2014-2015 한국YWCA 6대 추진과제
- 10 한국YWCA연합회 신임회장단
- 11 공천위원·실행위원 당선자
- 13 회원YWCA 신임회장

- 14 이달의 묵상 평화의 놀이 | 이찬진

칼럼

- 18 탈핵 제1편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김연중
- 20 여성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 이유명호
- 22 인권 인권이야기1 | 김종민
- 24 청년 대학·청년Y는6대 중점 고민이 있다!

- 26 이달의 현장 ❶ 제8회 한·일YWCA협의회 | 다카자토 스즈요, 윤수정 외
- 30 이달의 현장 ❷ 북한어린이돕기분유 전달 출항식 | 최수산나
- 32 이달의 현장 ❸ Y-틴 전국협의회 | 조은선 외
- 34 후원감사 '필리핀에 희망을', '북한어린이돕기'
- 35 연합회 소식
- 37 지역운동이야기 왜 지역운동인가 | 명진숙
- 39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2014년 Y-틴 전국협의회가 열렸습니다. Y-틴의 시각에서도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Y-틴은 '탈핵'을 중점운동으로 펼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한국YWCA

글 | 차 경 애 (연합회 회장)



2014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도 더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명기 11:12)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년 한해도 한국YWCA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고, Y가 전개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Y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19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부족한 제가 회장으로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순종하며 겸손히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한국사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세대, 계층, 분단, 지역으로 쪼개져 집단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굳이 이 저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Y에서는 2006년부터 ‘생명의 바람-세상을 살리는 여성 이란 주제로 Y회원들의 힘으로 생명, 정의, 평화운동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약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 8:7)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YWCA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탈핵운동’을 52개 Y가 함께 실천하는 주력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Y회원들이 먼저 깨어 있으면서 우리부터 에너지 절약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누렸던 풍요로운 삶을 바꾸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안도현 시인의 기도처럼 “나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열정을 소비해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살고, 가진 게 많아서 신나는 사람보다는 가진 것만큼으로도 충분히 신나는 사람”이 사는 사회를 위해 함께 걸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아담아(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글 | 장 윤 재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생명의 세계는 원자핵의 안정을 대전제로 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핵에너지의 세계는 원자핵의 안정성에 감히 도전함으로써 그 안정성을 깨뜨린 세계입니다. 그렇게 얻은 막대한 에너지로 인간이 처음 한 일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핵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세계와 생명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폭거이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한 성장의 탐욕 속에서 지구를 맘껏 사용한 인간은 지금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과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의 중심에 바로 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핵운동은 우리 시대 전체와 문명을 통찰하는 종교적 각성운동이며,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신앙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본문을 보면 에덴동산에서 ‘제왕 같은’ 인간에게 한 가지 금기가 주어졌는데 그 명령은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고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물리적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물은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신이 되곤 했던 탐욕의 인간을 다시금 본래의 겸손한 인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이 세계의 소유주인 줄로 착각하고 끝도 없이 오만해진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탈핵운동은 한없이 오만해진 인간을 본래의 겸손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신앙적 회심운동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인간을 본래 다른 생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던 생태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 위에 번성하고 있는 지금의 핵문명에서 벗어나 핵 없는 생명 평화 세계로 나아가는 출애굽 운동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소비지향적 삶을 위해 이웃과 후손과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이와 달리 절제와 인내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마태 7:13-14) 그런데 우리의 탈핵운동에서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핵은 내 ‘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핵은 내 안의 욕망과 너무나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종교적 각성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원자력이라는, 내 밖에 있는 저 위험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내 안에 타고 있는 욕망의 불을 꺼야 합니다. 내 밖에 있는 저 위험한 것을 멈추길 원한다면 내 삶에서도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죽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사랑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전기에 의존하는 우리의 ‘밝음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허황된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를 끄고 내면의 빛을 밝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애하는 YWCA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YWCA를 축복하시고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1·2월의 한국YWCA

글 | 유 성 희 (연합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유성희입니다. 월간<한국YWCA>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사무총장 보고' 요청을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았을 때, 월간의 제한적인 지면이 얼마나 중요할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느낌으로 전해드려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Y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Y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함께 묻고 함께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깊은 만남을 소망하며, 짧은 지면이지만 긴 여운과 많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은 회원Y와 연합회의 총회 뿐 아니라 회원조직의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5일에 열린 한국YWCA연합회 총회는 한국Y의 운동과 운영의 정책을 결정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니 하겠습니. 이번 총회의 특징은 지역대표수가 확대된 것인데, 3년에 한번 진행되었던 전국대회 기능을 총회로 이관시키면서 지역의 대표 1인과 연합회 실행위원의 투표권으로 제한되었던 총대표수를 회원Y(시단위의 지역Y)의 구분에 따라 2-3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90여명의 총회대표 숫자가 19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한국Y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함도 있고, 지역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의 고민을 더 깊이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연합회의 지향이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습니.

총회에서 연합회 회장단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3분 모두 40여 년 간 Y 회원으로 활동하셨고, 철저한 신앙훈련과 Y의 훈련을 오랜 기간 받으신 분들이시

니다. 세 분 모두 겸손하게 회원Y를 섬기며,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채워지는 Y가 되도록 다짐하셨습니다. 신입회장 연수는 회원Y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모든 Y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Y 목적을 철저히 숙지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가는 길이 Y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출되신 열한 분의 신입회장들께서도 Y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회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Y 목적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하시고, 뜨거운 기도로 새 책임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1월의 한·일YWCA협의회는 18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된 것인데, 양국 대표들 모두 철저한 기독교적 양심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문제가 개인과 국가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함께 돌보고 살려야 함을 나누었고, 전쟁에 의한 여성폭력문제, 탈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결단한 한국Y의 2014년 비전은 '탈핵의 세상입니다. 핵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과,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결단이 Y-턴 회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연합회 총회에서 탈핵운동을 위한 예산 증액까지 결의하신 것은 창조질서의 보전이 질체질명의 사역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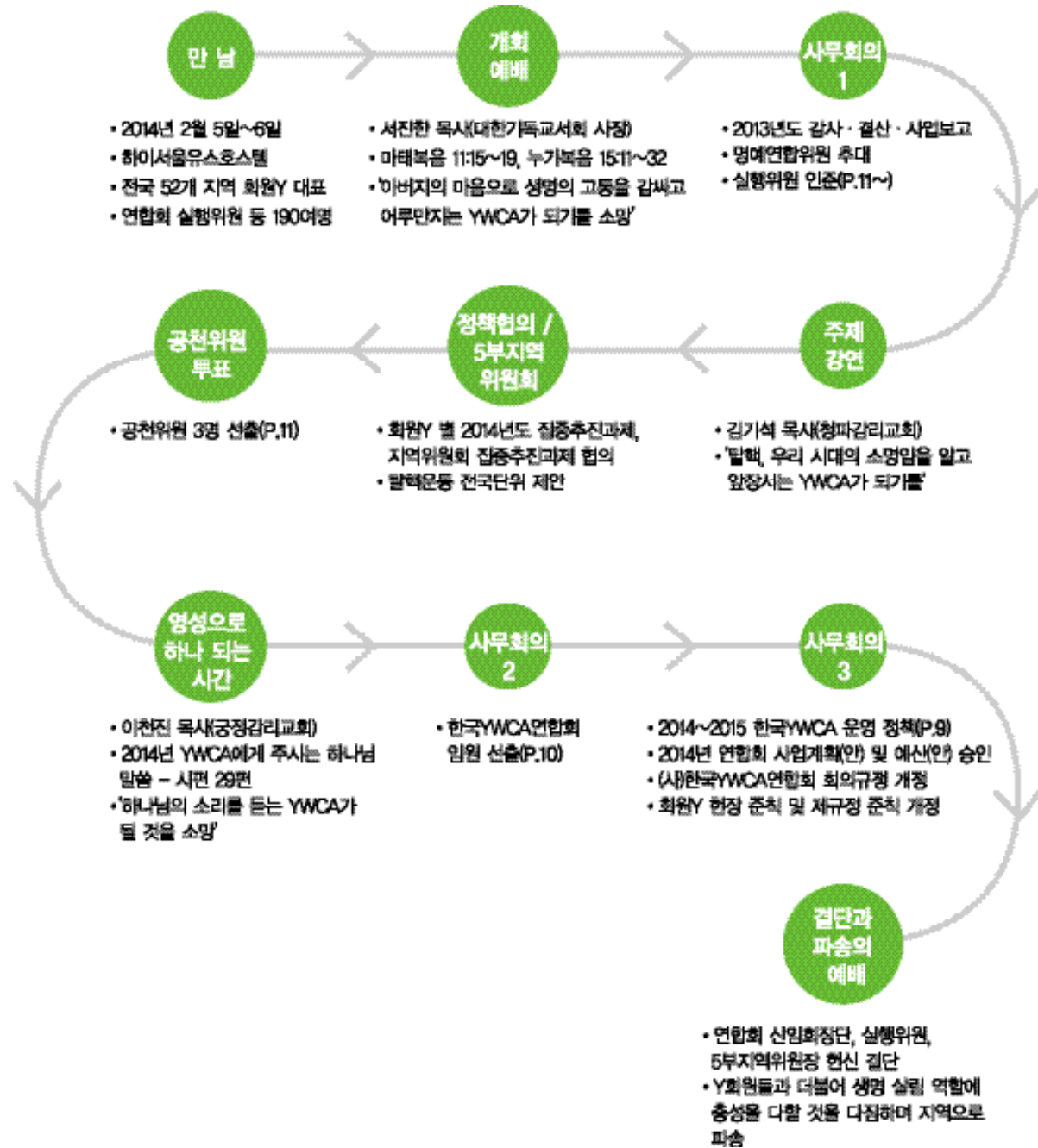
숨 가쁘게 시작된 첫 달, 새로운 사람과 사역을 찾고 세우는 1·2월의 한국Y를 돌아보니 한국Y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소리'이며, 한국Y 역사를 이어가는 힘이 '신앙의 실천'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관으로 Y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보시며 칭찬하시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회원Y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정기총회
- 2014-2015 한국YWCA 6대 추진과제
- 한국YWCA연합회 신입회장단
- 공천위원 · 실행위원 당선자
- 회원YWCA 신입회장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정기총회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한국YWCA연합회 신임회장단



회장 차경애

- 1967~1997 연합회 간사, 부장
- 1997~2000 연합회 위원
- 2000~2009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09~2011 연합회 부회장, 복지사업단 이사
- 2011~2014 연합회 회장



제1부회장 이명혜

- 1977~1986 마산Y 간사, 총무
- 1989~2011 연합회 위원, 서울Y 위원
- 1994~2011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00~2003 연합회 임원
- 2009~2011 연합회 임원, 후원회 이사
- 2011~2014 연합회 임원



제2부회장 한영수

- 1968~1972 대학Y 회장
- 1992~2011 연합회 위원
- 2000~2009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06~2009 연합회 임원, 후원회 이사
- 2011~2014 연합회 실행위원

공천위원 · 실행위원 당선자

※0름은 가나다 순.

공천위원 당선자



강교자

기독교 여성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YWCA의 지도자로 요구되는 자기관리에 게으르지 않고 기독교신앙을 기초로 한 신앙인격과 봉사정신으로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신희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이 차가운 이 겨울밤에 제가 다짐하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정들련

35년의 Y활동 경력으로 한국YWCA연합회 공천위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한국YWCA 책임지도자 발굴에 그동안 회원Y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실행위원 당선자

40세 이하(2명)



김량하

실행위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학Y의 일원으로 청소년 및 대학Y 운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며 아동,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신보미

YWCA 정신과 열정을 잃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한국YWCA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41~50세(4명)



이은영

많은 젊은 여성들이 Y를 알고 Y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인식하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유진

지난 임기를 통해 한국Y의 여성운동과 청년운동을 고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국Y의 여성을 새롭게 하고 젊은 회원지도력들을 양성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미

YWCA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으며, 특별히 청소년 문화 선교와 평화 통일준비에 대한 비전을 Y가족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한희경

회원Y에서 회원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학적 시각에서 Y운동을 해석하며 주체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1~60세 (6명)



김미

역사적인 100주년 준비에 참여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통일 한국의 삶을 준비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만드는 사업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활동하고자 합니다.



백혜진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갈등해결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 동북아의 폭넓은 이해 증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원영희

한국Y가 주창해온 생명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건강한 운동성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사랑 정신을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확산하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젊은 기독교 여성 단체로 지속발전하도록 힘을 합하겠습니다.



장미란

기독교여성들이 보다 확장된 공공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의식의 고취, 그리고 구체적 조직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배자

삶주림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한국Y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최형선

YWCA 정체성 재확립과 내부 결속력 강화, 회원Y와의 소통, 청년 교류의 장 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60세이상(2명)



김영자

교육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와 인권의 실현이 미약한 이사회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는 YWCA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신미식

YWCA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게 운동을 전개하여 사랑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YWCA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회원YWCA 신임회장

◆내용순서
※0팀 / Y경력



• 거제YWCA

진승미

2008 ~ 2014 거제Y 이사
2012 ~ 2014 거제Y 부회장



• 광양YWCA

장회섭

2002 ~ 2009 광양Y 이사
2010 ~ 2013 광양Y 부회장



• 대전YWCA

오순숙

1994 ~ 현재 대전Y 위원, 위원장
2006 ~ 2007 대전Y 제2부회장
2008 ~ 2009 대전Y 회장



• 서귀포YWCA

김신숙

1993 ~ 2000 서귀포Y 이사
2000 ~ 2002 서귀포Y 5대 회장
2002 ~ 2004 서귀포Y 6대 회장
2004 ~ 2013 서귀포Y 이사



• 여수YWCA

김숙자

2009 사회적기업 민들레마을(주) 대표이사
2012 ~ 2013 여수Y 부회장



• 원주YWCA

박경숙

2010 ~ 현재 원주Y 이사
2010 ~ 2013 원주Y 위원장



• 제천YWCA

주영숙

2006 ~ 2009 제천Y 이사
2010 ~ 2013 제천Y 부회장



• 진해YWCA

이순욱

2003 ~ 2013 진해Y 이사
2012 ~ 2013 진해Y 부회장



• 천안YWCA

김경순

2004 ~ 2013 천안Y 이사, 위원



• 평택YWCA

김향순

2000 ~ 2013 평택Y 부회장



• 청주YWCA

조규숙

1999 ~ 2003 청주Y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2003 ~ 2005 청주Y 여성종합상담소 소장
2002 ~ 2004 청주Y 부서기
2004 ~ 2008 청주Y 서기
2012 ~ 2014 청주Y 제1부회장

평화의 놀이

글 | 이 천 진 (공정관리교회 담임목사)

창세기 4장 1절-12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 (창4: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 (창4:2)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 (창4:3)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 (창4: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말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 (창4:5)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 (창4:6)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 (창4:7)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 (창4:8)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 (창4:9)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 (창4: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 (창4:11)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마셨다.
- (창4: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 답하십시오.

- 01)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4:1)
- 02) 가인의 아우는 누구입니까? 가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동생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2)
- 03)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을 반기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반기지 않으셨습니까? (4:5)
- 04)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5)
- 05) 하나님은 가인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셨습니까? (4:6)
- 06)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잘 다스리라고 하였습니까? (4:6-7)
- 07) 가인은 아벨을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4:8)
- 08)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4:9)
- 09) 가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4:9)
- 10)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13)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아벨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것에는 평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가인은 화를 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죄를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중에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에 의하면, 소제(곡식)는 번제(희생제물)과 더불어 중요한 제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제물의 열납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둘째, 제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물을 받고, 안받고는 하나님의 자유로, 그것을 사람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Cain and Abel), 마르크 샤갈(CHAGALL), 1960

-Q: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YWCA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땅 위에서 쉬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답변했는데,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형으로서 장자의 상속권과 축복권 그리고 농부로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강자였습니다. 아벨은 동생으로서 상속권과 축복권이 없고 유목민으로서 땅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강자인 가인에게 ‘약자를 보호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가인은 ‘내가 약자를 왜 지켜야 합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키지 않을 때에 평화가 깨집니다.

-Q: 나는 약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서 남쪽 193km 거리의 앨리머고드 공군 기지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불기둥이 치솟았고, 버섯모양 구름은 1만 2000m 상공까지 뒤흔었습니다. 강철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의 모래는 녹아서 유리가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폭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오펜하이머 박사가 외쳤습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이노라."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죽음의 신, 지구를 통째로 파괴해버릴 수 있는 세상의 파괴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ی 되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되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생명을 한 번에 죽이는 가인의 무기가 진화하였습니다.



히로시마의 버섯구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6만 피트 상공에서 미국 전투기는 우라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하여 제작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도시 히로시마는 거대한 버섯구름을 일으키며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건물은 거의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인이 죽임의 놀이를 한 것입니다. 가인은 이틀 뒤 나가사키에서도 죽임의 놀이를 하였습니다.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두 도시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히로시마 약 7만명, 나가사키는 약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한 생명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무려 9만 명을 죽인 핵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봅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와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의 집은 본래 하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소풍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소풍 나와서 기슭에서 사람들과 평화의 놀이를 하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이슬과 더불어 손잡고 노을과 함께 하늘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소풍 나와서 숨바꼭질, 손수건 돌리기 등 평화의 놀이를 하면 됩니다. 수만 명을 죽이는 가인의 놀이, 죽임의 놀이, 핵 놀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 **탈핵** _ 제1편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김의중
- **여성** _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 이유명호
- **인권** _ 인권이야기1 | 김정린
- **청년** _ 한국YWCA에 6대 중점 과제가 있다면, 대학·청년Y는 6대 중점 고민이 있다!

제1편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글 |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한국YWCA는 '탈핵을 2014년도 중점운동으로 채택함에 따라 월간(한국YWCA)에서 탈핵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김익중 교수님의 시리즈 원고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제 4 편 _ 그렇다면 선진국과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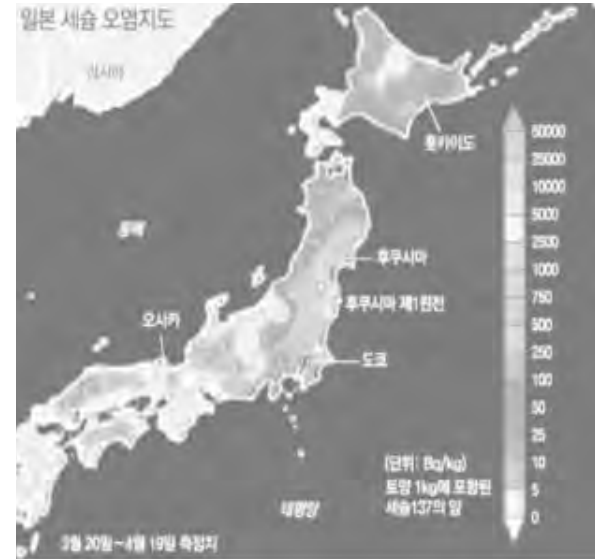
제 9 편 _ 핵재처리

제 10 편 _ 핵발전의 대안

2011년 3월 11일 진도9.0의 강력한 지진과 수시간 후의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의 동북부를 강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만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는 다시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이 되었는데, 3월 12일부터 3일간 3개의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이른바 노심용융이 일어났고, 2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폭발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핵사고는 일본 땅의 약 70%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켰고, 막대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태평양으로 내보냈다.

3개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원자로를 뚫고 내려와서 콘크리트와 땅을 파괴하였다. 차이나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수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녹아버린 핵연료는 현재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높은 방사능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용융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도쿄전력은 물을 붓고 있으며, 이 물의 대부분은 태평양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근처의 지하수도 이 용융 핵연료와 접촉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오염수이다. 오염수는 용융 핵연료를 치울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쿄전력은 이 핵연료를 40년 내로 반드시 치우겠다고 공

언한 바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40년 내로 용융 핵연료를 치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핵사고에 의한 오염수 유출은 앞으로도 백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국토의 70% 이상이 오염되었다. 이는 일본산 농산물의 70%가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인 밥상의 70%가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사능은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태평양 산수산물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일본인들은 오염된 국토와 오염된 바다로 인하여 엄청난 피폭을 받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토의 오염은 보통 300년 정도 지속된다고 평가된다. 방사능 오염의 기간은 세슘 137의 반감기인 30년의 10배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앞으로 10세대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피폭량을 정확히 평가하기도 어렵겠지만 평가한다 해도 피폭을 의미있게 줄이는 방법이 없다. 새로 태어날 아이들도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새롭게 피폭될 것이다.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필자는 오직 이민만이 일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억 2천만의 전 일본인이 이민을 갈수는 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의 국운은 꺾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일본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직 잠복하고 있는 각종 암, 유전병, 심장병들이 현실화되는 10년 후가 되면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압박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작된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이 그런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후쿠시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후쿠시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산 식품과 태평양산 수산물의 영향이다.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조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원산지 표시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산 식품을 구분해낸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는 바로 방사능 물질의 오염사고를 의미한다. 핵발전소 사고는 핵폭탄처럼 폭발 자체가 갖는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사고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당장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력 발전을 하는 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핵사고의 원인, 원자력 산업의 세계적 동향, 방사능의 건강영향, 한국인의 피폭경로, 핵폐기물 문제와 경주 방폐장 문제를 살펴보고 핵재처리 문제까지 소개할 생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의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원자력을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수십년 전부터 그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탈원전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필자는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제시하면서 탈원전(탈핵)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진행될 YWCA 탈핵 시리즈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글 | 이 유 명 호 | 이유명호 한의원 원장

여자 몸은 육장육부

신이 생명을 창조하고 일일이 다 하실 수 없어서 나 대신 인간의 탄생을 맡으라고 여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다. 여자는 자신의 반쪽 씨에 남자가 반쪽 씨를 보태어 열 달 동안 자신의 필로 길러 완전한 생명으로 길러내는 창조자다. 사람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나는 여기에 자궁을 추가하여 '육장육부' 라고 주장한다.

여성에게는 난소와 질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상등기관이 없는 자궁이라는 당당한 장부가 있다. 자고로 보물은 밖에서 훔쳐오지 않는 법, 너무나 소중한 때문에 몸 깊숙한 곳에 생식기와 자궁을 내장하고 근육 대신 비상열량도 되고 충격완화재와 보온단열재인 다목적 지방으로 몸을 소중하게 감싼 여성의 몸은 '고급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워낙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는 정교하고 정확한 시스템과 기능이 필요하다.

손가락을 오므려 주먹을 쥐어보라. 무게 60g, 길이 7cm 의 자궁은 주먹만한 낫대기 모양이다. 임신하면 자궁의 크기는 500배에서 1000배까지 늘어난다. 자궁은 놀랍도록 튼튼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몇 백배로 늘어나고 커지려면 근육이 힘세고 질겨야 찢어지지 않고 버틴다. 자궁의 근육은 내 맘대로 명령을 한다고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수의근이다. 난자는 정자

보다 10만 배나 무겁고 영양물질로 가득차 귀하고 비싸다. 수정란 단 한 개의 세포가 10개월 동안 자궁속에서 자라나 무려 2조 개의 세포를 가진 아기로 태어난다.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궁은 경이로운 장부로 엄청난 값비싼 옵션이다.

자궁은 평생에 걸쳐 혈액의 파도가 몰아치는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낸다. 평생에 걸쳐 자궁내벽이 수백번 두꺼워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순환주기가 박차게 반복된다. 자궁이 아기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정력(精力)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력제는 평생 윤택하며 아기를 키워내는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자궁근육에 튼튼한 탄력을 부여주고 충분한 혈액이 밀물처럼 차오르고 씻겨 나가게 하려면 무엇으로 정력을 보충해줄지 궁리해보자. 일생 동안 다달이 피로써 정전을 끌어내느라 자궁은 힘들고 지친다. 대조전 궁주들에게는 대영전(大營煎, 크게 영양을 주는 탕액)으로 보(補)함이 제격이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전 인류는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나누어 준 엄마와 자궁의 넓은 아량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 자궁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굵은 혈관으로 공급되는 피를 통해 모든 영양분을 끌어다 제 몸을 키운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엄마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들 낳아줄' 여자한테 잘하면 인생이 손조롭다.

생명주머니 난소

난소는 회색주머니에 진주같은 난자알갱이들을 담고 있어서 울퉁불퉁하다. 무게는 겨우 3.5g으로 금 한 돈 정도이며 양쪽을 합쳐봐야 7g이지만 여성의 일생동안 창조와 지혜를 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배란 때 난포에서 난자가 콩깍지처럼 터져 나가면 하얀 자국이 남는다. 배란은 여성의 몸 입장에서 보면 근육과 힘을 희생한 대신 엄청난 공들여서 영양과 유전자를 내장한 귀중한 난자를 내보내는 것이다. 정자는 사춘기 때부터 생산되지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사실을 알고 난 감동받았다. 임신 20주면 태어난 겨우 바나나 크기지만 이미 자신의 난소에 600만~700만 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사춘기가 되면 점점 속아져서 40만 개로 줄어든다. 그 중 양쪽 난소에서 매일 고대로 한 개씩 충분히 성숙해서 35년 동안 400~500개만 배란이 된다. 그중의 한 두 개 정도가 수정이 되어서 아기가 탄생한다.

유전정보만 담으면 되는 정자는 머리에 헤엄칠 꼬리만 달면 되므로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억 단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난자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수정란을 먹여 살리는 영양물질과 스스로 분열하는 엔진까지도 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자보다 몇 만 배나 무겁다.

또한 만들어내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400~500개 정도만 배란을 한다. 배란이나 월경곤란을 겪는 것은 감정적인 스트레스 요소가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훌륭한 생명 주머니 난소를 가졌음을 칭찬하고 보살피며 사랑해주어야 한다.

여성의 몸은 평생 난소와 함께 호르몬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호르몬은 한 조직에서 분비되

어 혈액이나 다른 체액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흘러가서 대사를 자극하는 물질로서 텅커벨의 금가루처럼 놀라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난소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거의 60종류나 되는데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라올 이 세 가지가 주류다.

난소는 완성이 지나서도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활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을 생산해낸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든다 해도 지방세포에서 여성호르몬을 생산한다. 완경을 맞이한 여성들의 체중이 적당히 늘어나는 것은 골량 감소와 노화를 막는 자연적인 방어로 여겨진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놀랍고도 기쁘지 아니한가. 여성의 몸은 평생 난소의 참여와 지지를 받고 있으니 몸을 믿어야 한다. 난소는 사는 날까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난소에 힘을 주는 음식

- 성질이 따뜻한 마늘, 자두, 살구, 토마토, 대추, 오렌지, 석류 등 빨간 열매와 에너지가 농축된 씨앗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실파, 부추, 갓, 미나리, 익모초, 쑥, 맥란, 질경이풀, 녹색 채소와 산나물을 미처서 드세요.
- 콩으로 만든 두부, 콩나물, 된장국을 자주 드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유기농 고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 피임약, 배란촉진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가운 음료수나 수입 유제품, 고지방식은 피하세요. 특히 서양에선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의 과다 섭취가 난소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니 주의하세요.

1) 이 원고는 이유명호 원장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2004,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발행하며 정리한 글입니다.)

인권이야기 1

글 | 김 정 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YWCA 운동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에서 조명해보고자 필리핀(한국YWCA)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김정린 선생님의 시리즈 원고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어 낯설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인권하면 웬지 나와는 별상관이 없는 이야기같이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면면을 따져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의 관계 등 그 어느 한 부분도 인권과 관련없는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의 자유(right to freedom of religion), '집회결사의 자유(right to freedom of assembly), '표현의 자유(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이동권(right to movement),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권이란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기독교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 쪽으로 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 인권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개념의 등장

인권의 개념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면, 서구에서 인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 근대시민국가가 탄생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요. '짐이 곧 국가' 였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 한 사람이 전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구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이런 절대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참지 못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프랑스 시민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을 통해 세워진 근대시민국가가 가장 강조한 것이 법치주의와 인권이었습니다. 여기서 법치주의(rule of law)란 과거 절대왕정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다스렸던 것과는 달리,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요즘 언론등을 통해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본래의 뜻을 오해, 오도한 것이라 보입니다.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국가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민혁명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천명하고, 국가가 각 국민이 신으로부터 받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의무로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모든 유형의 인


권을 다 갖게 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세금을 내는 남성들만이 선거권을 가졌고, 노예제도가 여전히 유지되었지요? 이때부터 인권의 기본체계가 잡히고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깨닫고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누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인권을 가진 주체인지에 대한 인식이 시작될 것이지요.

인권보장의 의무 주체, 권리 주체 개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닌 국가(duty-bearer)와 권리주체로서의 개인(rights-holder) 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고 이는 오늘날 국제인권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의무는 소극적 의미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할 의무, 보다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인권은 국가와 개인 간에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건 개인간의 권리 다툼의 문제로 보지 않음으로써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종교와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가(앞에서 얘기한 대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인권이 존중될 기반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걸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인권을 논의함에 있어 권리 보호의 의무주체(국가)와 권리의 주체(개인)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살펴볼게 될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하고, 그 규범을 국내에 이행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데 무척 중요하고도 유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권리를 가진 자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내 개인의 권리 주장이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향유하는 것만큼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필수덕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인권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요, 아직도 인권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 5-6개월에 걸쳐서 세계인권규범 탄생의 배경 및 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인권규범이라고 하면,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하여 9개의 국제인권조약과 그에 따른 선택 의정서를 골자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권분야에서의 새로운 논의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YWCA의 활동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에서 조명해보고 YWCA 활동이 시민들 특히 여성, 소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말로 정의해봅시다.
-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린 인권문제가 있으면 서로 나눠 봅시다.
- 인권에 있어서 보호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권리주체로서의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내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침해하는 사례를 들어보고, 내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행사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OHCHR)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한국YWCA에 6대 중점 과제가 있다면, 대학·청년Y는 6대 중점 고민이 있다!



2014년 2월 5일,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대학·청년Y 대표자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대학·청년Y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 대학생·청년으로서의 고민과 바람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우리시대 청년들의 생각을 엿볼수있는이 이야기들이 자리에 소개한다. (정리: 이지은 청년리더십팀 간사)

◀ 왼쪽부터 박은실(연합회 중점운동국 국장, 김광식(경주대Y Y 회의회장, 신보미(연합회 실행위원), 배현우(대전대Y 부회장), 천승환(전주대Y 임원), 김수희(전주대Y 회장), 안수경(청년리더십팀 위원, 이지은(연합회 간사)

Talk 1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입시도 끝났으니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배낭여행도 가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직접 부딪쳐보는 그런 활동들이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 같은 건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어디로 가야 이런 흥미롭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Talk 2

“이게 진짜 내 길일까?”

지금 제 전공이 딱히 싫은 건 아니에요, 물론 입시 때 성적에 맞춰 대학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관심 없는 전공을 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또 공부하다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주~욱 가야 할 길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하게 하신 게 하나님 이시라면 분명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Talk 3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전공과도 전혀 다른 분야라서 그 일을 하려면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를 하면 어떨겠냐고 하시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취업이 늦어지면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데, 일단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Talk 4

“어떻게 해야 이성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이성친구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뭘 할까? 뭘 해줄까? 늘 고민하는데, 이벤트 아이디어는 거의 바닥났고, 주머니 사정은 뻔하고요, 연애를 해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다고 20대에 연애 많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이에요~

Talk 5

“너도 나도 옳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지?”

요즘 사회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시끄러운데, 이 쪽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쪽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가 절대선인 것처럼 싸우는 거 보면 양쪽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죠?

Talk 6

“왜 그래야 하는데?”

다들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대학입시만 보고, 대학은 대기업 취업만 보고, 취업하면 돈 벌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그렇게 가면, 저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건가요? 대학은 진짜 가야 하는 건지,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진짜 잘 살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만 다른 길을 가자니 겁도 나고, 고생도 할 것 같고...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저 혼자 저슬러가도 되는 걸까요?

관심 있는 일이나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진짜 해도 괜찮은지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 단계씩 나아가기보다 지름길을 알고 싶어 하는 조급함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대학생·청년들만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는 아닐까?

오키나와에서의 여성 인권 너무나도 오랜 군대의 주둔이 초래하는 폭력

글 | 다카자토 스즈요 [오키나와WCA 회장 기지와 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행동하는여성들의 모임 공동대표]

오키나와의 현실: '미군의 주둔은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2005년 7월 어느 일요일, 교회학교로 향해가던 10세 소녀를 술 취한 미공군병사가 강제적으로 가슴사진을 찍으려 고한 성희롱사건이 일어났다. 소녀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시키는 했다"라며 경찰에 그 당시의 공포를 말했다. 사건 후 부모들은 기지 게이트에 인접한 이 지역에서 "이 주변은 특히 새벽녘에서 끔찍하다",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형 이외의 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라크 귀환병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었다" 등등, 형상시 느끼고 있던 불안을 이야기했다.

오키나와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세 명은 지사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양원 의무위원회에서 다루고, 과중한 미군주둔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의 마찌무라 외무대신은, "여기에는 미군과 자위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완전히 빠져있어서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것은 일본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오키나와와 여성이 희생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전후 68년간, 기지·군대에 의해 여러가지 폭력으로 오키나와(沖縄)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해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군대 구조적 폭력-미군기지 설으로서의 68년

태평양전쟁 직후로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는 대일강화조약(1952년 발효) 제3조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된 오키나와에서는 미국의 군사점령 아래 미군주둔으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이 증가 일로를 걷는데 특히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 1950년대에 매매춘 시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결국 시설은 설치되었고 미군은 성병 대책으로서 여성들에게 성병정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폭력은 지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베트남 전쟁 시기 (1963년~1975년)에는 미국 병사들 상대하던 많은 여성들이 폭졸라살해되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미군의 성폭력은 결코 개개인 병사의 범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본질과 살상과 고통이 각인된 의식, 식민지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파악해야만 한다.

아픔을 넘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2008년 3월 23일,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 병사에 의한 모든 사건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현민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의 증언으로 미군 병사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들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피해 여성들이 안고 살아온 아픔은, 긴 세월 동안 발생해 온 성폭력, 밝아 뚱개진 존엄, 차별,

편견 속에서 배제되고 왜소화되어 온 기억과 차곡차곡 겹쳐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미국 병사에 의한 소녀강간 사건에서 그 소녀의 고발에 자극받아 하나의 응답으로서 여성들이 만들어 낸 '강간 구원 센터·오키나와', '기지와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활동은 피해자가 확실하게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하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규모 군대의 장기주둔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여성, 어린이, 주민의 생활에 초래되는 만성적인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실하게 군대를 물러나게 할 것인가? 군사력과 폭력에 가득 찬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군대의 장기주둔 아래의 폭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오키나와의 여성들은 1995년 북경 여성대회에 참가하여 '군대·그 구조적 폭력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들은 특히 '북경 행동강령' 초안 중 '무력분쟁과 여성' 항목에 주목했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 회의에서 처음으로 '분쟁 상황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 범죄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졌고, 그 해 유엔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결의'가 채택되었다. 지기에 오키나와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사실 오키나와는 외국군에 의한 점령상태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외국군대의 주둔에 의해 일어나는 항상적이고 만성적인 폭력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전장으로 이어지는 군사기지의 존재는 분쟁 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키나와 여성들은 일본 정부대표에 대하여 행동 강령의 항목 '분쟁 상황 혹은 외국의 점령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문구의 사이에 '군대의 장기주둔 상황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제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NGO 여성회의에서는, '분쟁 상황아래'라고 하는 것을 '외국

의 점령 상황' 혹은 '식민지화'라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오키나와의 '군대의 장기주둔 상황'과 더불어 생각하는 관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를 어떻게 실행 것인가

작년 3월 4일부터 열린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의 주제는 '여성·여아에게 대한 폭력' 이었는데, 전세계 약 4천 명이 참가하여 2주 동안 열띤 토의를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혹은 직장의 성희롱, 무력분쟁 하의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와 모든 폭력에 대한 방지 및 지원책 그리고 정부의 책무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 때 일본정부대표는 '여성, 평화, 안전' 분야에 대한 노력으로서 '안보리결의 1325호'의 국내 행동 계획 책정안을 발표하였다. 분쟁지역 여성이나 난민 여성의 구원, 인신거래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각지에서 계속되는 무력분쟁 가운데 많은 피해를 입고 난민화 되어가는 것은 대부분 비전투원이며 여성·어린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미 국내 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현재 진행중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 군사기지를 집중시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일안전보장군사동맹 관계를 최대의 국익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에 대한 관점도 이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여러 가지 국제원조에 대하여는 국내 문제와의 정합성을 가진 국내 행동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젠더 행동의 구축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자위대에 여성의 비중을 늘려 분쟁 후 지원 역할로 파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군대의 의미를 묻고, 비폭력을 기조로 평화에 공헌해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행동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버려진 머릿돌이 평화의 주춧돌 되어

글 | 윤 수정 (회원협력지원팀부장)



한국과 일본Y의 대표 24명이 오키나와에 모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간의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8회 한·일Y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한·일Y협의회는 1975년 10월 한국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1994년 일본에서의 제6회 협의회를 끝으로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 후 18년만인 2012년 10월 한국Y 주최로 다시 재개되어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일Y협의회는 한·일간의 현안에 대해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YWCA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한국Y 참가자들은 세 번의 준비모임을 통해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와 지금의 미군기지 문제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노력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일본Y 전체가 이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이번 한·일Y 협의회를 준비하였는지 알게 되었다.

오키나와Y는 2002년에 설립되어 현재 15명의 회원 중 10명 정도가 활동하는 아주 작은 Y이다. 사무실도 없어서 한 평화연구소에 필요 시 공간을 빌려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실무자도 없다. 이런 작고 약한 지역Y의 문제를 일본Y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한국Y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일본Y의 결정은 지역운동의 힘과

운동에 대한 지도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약하고 어려운 지역Y이지만 지역의 문제에 대한 절절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오키나와라는 지역을 넘어 전체 일본Y와 연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한국Y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살아있는 지역운동이 있기에 오키나와인의 바람처럼 미군기지가 철수하고 지역이 되살아나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날이 앞당겨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협의회 일정 중에 한국Y 여성교재 <새벽종소리> 중 'YWCA의 목적' 단원을 모든 참가자가 함께 공부하였다. 한·일 참가자들은 운동가로서의 역할, 삶에서 지역에서의 Y 역할, 운동 실천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한·일Y 공동결의문을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가한 그리고 가하고 있는 잘못과 왜곡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와 삶에 대한 성찰과 운동에 대한 진지하고도 절실한 시각, 한 지역의 문제를 전체 문제로 보고 연대하고자 하는 일본Y의 시각 등이 일본Y 운동 전개에 있어서의 저력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폐회예배에서 히라야마 요시코 대표이사(고베YWCA)는 "우리들의 보는 눈을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입장에 처한 사

람들로 옮겼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사회 구조 어디에 거점이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YWCA 운동가로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약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로 우리의

시각을 옮기고, 삶에서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과 그에 기초한 결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지역에서 YWCA 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 힘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기문>

'생명은 보물' 노래가 있는 그곳

글 | 유도희 (연합회 실행위원)

오키나와 바닷가에 심자가 세우고 서로가 의지하며 손 모아 기도할 때
바닷바람이 불어와 나에게 속삭이네,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
비록 작을지라도 생명이야말로 보물, 풍성하고 풍성한 생명.....!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부른 이 노래는 오래도록 내 마음을 저리게 할 것 같다. 개회예배 시간 '갈릴리 땅은 예수
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으로 민중이 예수에 의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땅, 그리운 마음의 고향이다. 오키나
와가 바로 오늘날의 갈릴리라고 생각한다. 태평양전쟁 이후 미군기지점으로 68년 동안 군대의 구조적 폭력과 일
본 정부의 차별에 온 몸으로 저항한 현쟁 류큐 왕국의 후손인 오키나와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 딸의 목
숨과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그 땅에 너무나도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살롬' 이었다.
학살의 현장을 돌아보던 날 맑고 청명한 오키나와 하늘엔 전투기가 계속해서 날고 있었다.
오키나와 바닷가에 세워진 심자가 지금도 이어지는 아픔의 상징이라
그렇지만 심자가는 새로운 생명이네, 곳곳에 살라는 참 생명의 말씀!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매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한·일YWCA협의회였다.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글 | 함희경 (연합회 실행위원)

현재 한국에서 일본의 하와이라 칭함을 받는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라는 평온한 독립의 왕국이었다. 1879년 일본이 류큐왕국을 무산시키고 일본으로 귀속,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땅, 베트남전쟁 이후 1972년부터 일본의 영토가 된 역사를 가진 오키나와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전쟁의 희생물이 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미군기지의 75%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면서 오키나와인들을 구조적 불평등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군기지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오키나와 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폭격기와 비행기의 훈련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과 추락의 위험성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협의회 대표단 일행은 주제 강연과 현장답사, 국가별 보고와 토론, 성경공부와 예배 등으로 매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리고 일정 중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일Y 공동결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한·일YWCA협의회는 양국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의 역사를 나누며 이슈를 논의하고 화합해서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장이었으며, 한국Y와 일본Y간의 자매애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YWCA, 남포지역에 분유를 보내다

글 | 최수산 나 지역운동국부장

지난 1월 14일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 전달을 기념하는 출항식이 인천항에서 진행되었다. 출항식에는 협력 단체인 '함께 나누는 세상'의 대표자들과 실무자, 그리고 한국YWCA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들과 실무자 총 20명 가량이 참석하여,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한미래를 기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서를 가졌다. 한국YWCA에서 지원하는 약 4톤 분량의 전지분유는 중국 단둥을 거쳐 남포에 도착한 뒤, 영양병으로 제조되어 남포시 보육 시설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뒤인 16일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한반도 상황과 한국Y 2년 만의 분유 지원

이번 분유 지원은 2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원활하지 못한 남북 정세의 영향으로 2011년 11월 안주 지역 어린이집에 분유를 보낸 후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열게 된 기회이며 결과이다.

2010년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5.24 조치가 발효되면서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간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서거에 따른 북측의 정권 변화, 그리고 북핵 실험과 미군핵잠수함 진해항 배치 등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한반도는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였고 평화 협정의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이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거듭하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걸어왔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20여년간 쌓아왔던 남북교류 활



한국Y가 지원하는 약 4톤 분량의 분유

동의 위축과 함께 민간 대북지원 활동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개성공단 폐쇄 위기 사태는 남북 기업들의 도산과 재개의 어려움이라는 충격적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민간 교류 협력 단체들의 활동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 의미있게 형성되어온 나눔, 협력, 평화통일 등에 대한 가치들이 국가적 불안감 조성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YWCA 분유 지원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전개해온 회원Y의 노력과 여기에 기꺼이 선한 의지를 모아주신 분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통일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해왔다. 공약에 비해 실제적 지원과 추진력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는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며, 하나씩 열리고 있는 문을 힘껏 열어젖힐 시민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고자 한다.

인도주의 vs 국가안보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종종 이념적, 정치적 이슈로 전환된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는 인식을 함께 하지만 인도주의에 기반한 의무감이, 때로는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치열하게 대립하며 국가안보 이슈에 묻히게 된



출항식이 진행된 인천항에서


다. 시민사회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지원을 강하게 정부에 주장해왔다. '인도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이념, 계급 등의 차이를 초월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로 정의된다. 그간 FAO나 WFP 등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안보 위협 상황에 직면해있음을 알려왔다. 북한의 식량권을 해당 정부의 의무로 치부하며 국가안보와 연계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북 어린이들이 신체적 격차를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이해나 교류가 전혀 없이 자라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통일한국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눔으로 평화: 약자에 대한 기독교적 공제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내 식비의 10분의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므로 이웃과 함께 나누다'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출발한다. 십일조는 사회적으로는, 기업을 갖지 않은 레위인과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미(誠米)제도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일조로 참여하는 쌀 나눔 운동이다. 한국Y '나눔으로 평화' 운동은 경제적 불평등, 소유의 불공정과 독식 등이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나눔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와 함께 구체적 나눔 실천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측은지심으로 돕는 단지 선한 행위 그 이상이며, 정의와 평화에 대한 소망으로 평화통일의 기반

을 마련하는 기독교적 사회 참여 운동이다.

북한에 전해지는 마음

2013년 한국Y는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을 구성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52개 회원Y와 함께 캠페인, 교육,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사·위원·실무자들이 출석교회를 협력 교회들로 연계하고, 온라인 및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 참가자들을 확보하였으며, 25개 지역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영유아영화교육 연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14년 한국Y는 세계Y와 더불어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2013년은 감동적인 나눔 참여자를 찾아내고 몇 개의 사연들은 월간을 통해 공유하였다. 명동길을 지나다 Y회관의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온 엄마와 아이들,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며 참여해오신 시골 교회의 목사님, 은퇴 후 뼈뺀 연금에도 고향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돕기를 실천하시는 어르신, 사랑하는 아들 혹은 가족들의 명의로 북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들, 살아온 날짜수를 계산해 기부한 이사님, 교회들과 Y어린이집의 협력과 나눔들, 이 외에도 사연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할 뿐이다. 모든이의 소망처럼 한국Y가 북한 땅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만들며 평화통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해도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Y-틴 중점 운동 '탈핵',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글 | 조은선 (지역운동국팀장)



2014년 Y-틴 전국협의회가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Y-틴 회원 대표 95명이 모인 가운데 버들캠핑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YWCA 6대 과제를 공유하며 올해 Y-틴 중점운동을 결정하고 이를 이끌고 갈 중앙임원을 선출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Y-틴 전국협의회를 여는 예배시간에는 밀양 할머니들의 송진탑 반대 운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탈핵운동이 생소한 Y-틴들은 영상 속 할머니들의 울분과 처절한 투쟁의 몸부림에 순간 숙연해졌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박 3일 동안 한국YWCA 6대 과제와 관련한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며, 올해의 Y-틴 중점운동 선정에 고민을 계속하였다.

이번 Y-틴 전국협의회는 키다리(키우자 Y다운리더)학교의 청년상인 '팀리더십', '비전리더십', '실천리더십'의 세 가지 리더십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Y-틴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연관시켜 고민할 수 있도록 각각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Y-틴 활동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의 Y-틴을 이끄는 리더로서 가져야 할 비전을 함께 세우고자 하였다.

첫째 날 저녁 시간에는 반태섭 목사(한국치유문화원)와 함께 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으로서 가지는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회원들과 마음을 열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Y-틴 중점운동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YWCA 선배와의 만남은 김광식(청주Y대학Y회장), 이의선(2013 Y-틴 전국협의회 회장), 한미미(한국YWCA연합회 청년리더십 팀) 위원이 함께 하였다. 김광식 회장은 2013년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를 통해 배웠던 탈핵운동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점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이의선 회장은 2013년 Y-틴 중점운동 전개 과정과 경험을 토대로 Y-틴 회원으로서 가져야 할 운동성과 2014년 중점운동 논의시 중요시 여겨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한미미 위원은 Y-틴 회원들이 YWCA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펼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이들의 활동 경험은 Y-틴 회원들이 도전을 받고 비전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2014년 Y-틴 중점운동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한국YWCA의 6대 과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선배활동가

들의 경험을 듣고 현 사회 이슈와 관련한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Y-틴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했다. 조별로 진행된 워크숍은 긴 시간 토론을 통해 여성폭력예방운동과 탈핵운동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마지막 날 진행된 전국협의회에 공식 제안되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Y-틴 중점운동과 주제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4년 Y-틴 중점운동은 '탈핵운

동'으로 정해졌으며 주제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로 결정되었다.

올해 Y-틴 중점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총 10명의 Y-틴 중앙임원을 선출하였다. 전국협의회 회장으로는 동해YWCA 박한나 회원이, 총무로는 광주YWCA 이의선 회원이 당선되었다.

2014 Y-틴 중앙임원단



전국협의회 총무 이의선 (조대여고 2)



중부지역 회장 유혜연 (신일여고 2)



동부지역 회장 손자수 (운암고 3)



동부지역 총무 김미래 (함월고 3)



북부지역 회장 이수빈 (부광여고 3)



북부지역 총무 이윤정 (이화여고 2)



서부지역 회장 박지연 (송원여고 3)



서부지역 총무 박성연 (여수여고 2)

전국협의회장이 되어



글 | 박한나 (Y-틴 전국협의회장, 강원여고 2)

전국 Y-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가기로 마음먹었던 전국협의회. 2박 3일간의 일정 속에 Y-틴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나누고 고민하며 소중한 동역자들이 생겼다. 이곳에서 나는 전국협의회장으로 당선되었고 1년 동안 Y-틴을 대표해 나가야 하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나를 믿고 뽑아준 회원들의 믿음에 더욱 부흥해 누구보다 당차고 활기차게 한걸음씩 성장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Y-틴들이 Y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Y-틴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필리핀에 희망을'

모금운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8일, 필리핀을 휩쓴 초강력 태풍 '하이엔(Haiyen)'으로 인해 최소 1만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고, 62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2013년 11월 유엔 발표). 이에 필리핀YWCA와 세계YWCA는 이재민과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 운동을 요청하여 세계 125개국 YWCA에서 이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YWCA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필리핀 하이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YWCA 긴급구호 모금운동으로 '필리핀에 희망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총 26,213,472원(1,090,700 페소)

을 모금하였고, 2014년 1월 10일 필리핀 YWCA에 전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필리핀YWCA에 전달된 지원금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사마르(Samar)와 레이테(Leyte)에 긴급 식량과 물품 구입과 록사스(Roxas city) 거주 YWCA 회원들의 집수리와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필리핀 YWCA는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펀드를 마련하여 중장기 재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12. 1 ~ 2014. 1. 31)

CMS 기부 (2013년 12월1일 ~ 2014년 1월 31일)	강현중, 국승훈,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김가혜,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희숙, 문미란, 명진숙, 박용욱,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윤숙, 이은영, 이주영, 이항자, 이혜련, 임강숙, 임진영, 장경자,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영한, 조은영, 조은선, 조은희, 진인식, 최수산나,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승이, 한영수, 홍기자, 황정아, 황홍백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김형, 이종임, 신희은, 전인선, 최혜실, 차운재, 차효정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서초신동교회, 성광교회, 한양대 여성교회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신우회, 해피빈, 마산문화여고, NEW(한미), 예수비전교회, 꿈꿨어린이집 어린이, 예수비전교회, 꿈꿨어린이집 학부모
회원YWCA, 부속시설	강릉Y, 광주Y, 거제Y, 고양Y, 광양Y, 거제Y, 남원Y, 논산Y, 대구Y, 대전Y, 동해Y, 마산Y, 목포Y, 부산Y, 부천Y, 서귀포Y, 서울Y, 서천Y, 서귀포Y, 세종Y, 성남Y, 속초Y, 수원Y, 순천Y, 안동Y, 안양Y, 안산Y, 양산Y, 여수Y, 울산Y, 의정부Y, 인천Y, 익산Y, 전주Y, 제주Y, 제천Y, 진주Y, 진해Y, 창원Y, 천안Y, 춘천Y, 충주Y, 청주Y, 통영Y, 평택Y, 포항Y, 마산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및 모임	대구Y 90주년 평화음악회, YWBS 5,6기 아나운서, 연합회직원아나바다

연합회 소식

2014 연합회 신년예배



2014 연합회 신년예배가 1월 2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운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학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전했다.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후원회 이사, 실무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5~)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연합회 및 회원Y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연합회 회장단 선출, 2013년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와 2014~2015년 한국YWCA 운영정책 결정,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 P.8~)

회원YWCA 신입회장연수

신입회장연수가 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하이유스호스텔에서 있었다. 'YWCA회장의 리더십 형성요소(김은경 실행위원), 한국Y중점운동과 정책방향(유성희연합회사무총장), 사례로 나누는 Y회장의 사명과 역할(김형 연합회전 부회장, 하선규 부산Y회장, 최양남 광주Y회장), 새벽종소리(이진천 목사)를 주제로 한강의와 선배 회장단과의 만남이 있었다. 신입회장 총 10명이 참석했다.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2014년도 정기총회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2014년도 정기총회가 1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013년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재산현황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Y-틴 전국협의회

2014년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버들캠장에서 열렸다. 2013년 Y-틴 중점운동 활동 공유, 2014년 Y-틴 중점운동 선정, 2014년 임원 선출이 있었다. Y-틴 회원, 회원Y담당 실무자, 연합회 위원 등 총 91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32~)

제8회 한·일YWCA협의회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간의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8회 한·일YWCA협의회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렸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군사주의)로 인한 여성폭력, 인권침해, 주거 불안 등에 대한 문제 공유와 현장답사, 한·일Y공동결의문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YWCA 대표로는 연합회 임원단, 실무자 총 10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26~)

북한어린이돕기분유 전달 출항식

북한어린이들에게 분유를 전달하는 출항식이 협력 단체인 '함께 나누는 세상'과 함께 1월 14일 인천항에서 열렸다. 선적과 출항은 1월 16일에 이루어졌으며 한국YWCA는 전지분유 3.6톤(4천만원 상당)을 남포지역 어린이시설에 보내게 된다. 평화나눔팀 위원, 연합회 실무자 7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30~)

길 위의 평화학교 1

'길 위의 평화학교 1' 활동보고회가 지난 12월 18일 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길 위의 평화학교 1'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넘어, 남한과 탈북민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여행과 이야기 나누를 테마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서울Y, 청주Y, 부산Y 새터민지원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

다. 서울Y, 청주Y, 부산Y참가자와 실무자, 연합회평화나눔팀 위원 25여명이 참석했고 '길 위의 평화학교' 의미와 방향, 지역별 활동보고, YWCA PR 기자단의 활동보고와 탈북민과 남한민 대표의 소감발표가 있었다.

다래교실 평화캠프



7개 회원Y와 지역아동센터 다래교실 학생들과 함께하는 평화캠프가 1월 7일부터 8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진행됐다. 청소년 다문화 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자아와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총 54명이 참석했다.

키다리학교 졸업캠프



키다리학교 졸업캠프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있었다. 2013년 키다리학교 활동 내용 공유, 키다리감수성·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6개 회원Y(고양, 서울, 안양, 청주, 광주, 대전) 청소년

과 운영진 등 총 50명이 참가했다.

「플랫 b」저자 강연회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을 기념하여 출간한 책 「플랫 b」의 저자 강연회가 1월 20일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홀에서 있었다. 김은경 실행위원의 사회로 여성지도자상 수상자 김영미, 임오경 씨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었다.

김필레리더십캠프

김필레리더십사업회가 주관한 김필레리더십캠프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정신여중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김필레리더십 관련 강의 및 워크숍, 연동교회 등 기관 탐방, 과제 연구 및 발표, 연극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총 15명이 참석했다.

한국YWCA 인터넷방송국(YWBS)

7기 방송 시작

YWBS 7기 방송이 1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YWCA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자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프리카 TV(www.afreeca.com/ywca1)에서 방송된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연합회가 2011년 12월 출범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2월 10일 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된 2014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기총회에서 유성희 사무총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던 사무국을 연합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전국 14개 지역네트워크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 교육·홍보, 기업·종교계 등 1기관 1사회적기업 캠페인, 국제교류·협력, 성금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범국민적인 사회적기업 확산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YWCA·YMCA·경실련 중심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조계종·원불교·천주교 등의 종교계, 전경련·대한상의·은행연합회 등 재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현재 전국에 1천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동정

· 김은주 (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 2014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상 수상



글 | 명진숙 (지역운동국국장)

지난 총회를 통해 2014-2015 한국YWCA 정책이 결정되었다. 또한 6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YWCA운동의 키워드를 전문성과 통합성, 청년성 그리고 지역운동성 강화로 정했다. 그런데 전국 52개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YWCA에서 '지역운동성 강화'를 다시 강조하게 된 이유는 왜일까?

YWCA가 걸어온 역사의 자취에서 볼 때, 지역운동은 친근하게 다가온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이 활동했던 농촌지역에서, 그녀는 여성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지역운동은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50년대는 극빈층 대상의 공동체 운동, 60년대 이후에는 도시빈민 지역공동체 운동, 80년대 이후에는 생협운동, 생활공동체 운동 등이 있다. 90년대 이후로도 지역운동은 이른바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여성 지역운동의 배경 시민사회의 반성과 더불어 강조되었다.

YWCA를 포함한 여성단체에서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은 몇 가지 배경을 갖는다. 먼저 여성운동의 대중화와 연관된다. 여성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운동을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부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로의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여성단체에서 주부들이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됨을 알았다. 둘째, 1990년대 초반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영향이다. 행정단위인 '지역'이 그 구성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생활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본격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성별분업의 구도-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생계보조자, 혹은 가사노동 전담자-는 여성운동에서는 극복해야 할 운동적 과제였다. 또한 전업주부라는 존재적 성격은 공적 영역에의 참여가 결핍된 존재로, 언젠가는 사회적 노동의 참여를 통해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주부가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작업은 여성운동 내부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활동일 때가 많았다. 사실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 쓰레기재활용운동 등 이제까지 여성들이 주도했음에도 그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난 삶에 대해, 이웃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지역운동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은 우선 여성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욕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성 세력화의 어려움

그런데 지역운동에서 여성들의 세력화와 힘 갖추기, 이른바 세력화는 몇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먼저 여성들의 의식을 재편하지 않고는 가정을 벗어난 이른바 사회활동에 지속적인 참여가 곤란하다. 둘째, 여성들의 활동이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계속하기가 힘들다. 셋째, 여성들의 활동을 하찮

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로, 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보람을 갖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역운동에 대한 강조가 있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의 이슈가 활발히 제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가 성과를 거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슈를 제기하는 운동에 비해 대상화되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사실 여성운동은 억압받는 여성과 지배적 남성간의 위계체계를 해체하고 왜곡된 여성과 남성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00년에 걸쳐 뿌리를 내린 서구여성운동의 경우, 17-8세기에 계몽사상과 자본주의 초기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부르주아 여성의 자각과 자아발전을 필두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여성운동의 방식 또한 근대성의 산물이며, 이성 중심과 성장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운동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운동은 복지국가의 문제를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을 어떻게 탈가축화할 것인가' 의 관점에서 여성을 임금노동자로서 가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점차 사회는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와 양육, 지역사회 활동 등 점점 사회적 돌봄의 가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른바 '위험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형성된다. 위험을 통해 얻는 자와 잃는 자간의 사회적 갈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극한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다. 도구적 합리성의 요소들은 급속한 변화 앞에서 무력화된다. 이제는 자아성찰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부상하게 된다고 한다. 즉 위험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역설적으로 상호의존과 신뢰의 중요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적 위험사회의 징후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면

적 사고방식, 성장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현재에만 몰두하는 것, 그리고 복지의 결여와 극심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과 가정이라며, 사회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며,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에 대한 관심은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YWCA 지역운동의 중요성

지금 YWCA는 왜 지역운동을 말하는가? 우리는 2014년을 맞으며, 하나님나라의 돌봄공동체라는 새로운 지역운동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치를 주장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여성 개인과 조직의 세력화를 이야기하며 강조되었던 지역운동이 아니다. 가정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른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란 경계를 넘어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역을 삶의 근거지와 방향성으로 정리하는 교차점을 새롭게 만들자는 다짐이다. 그리고 위험사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한국사회가 새로운 가치로서 지역을 공동체로 재구성하고, 대안을 만드는 숨쉬기의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에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이제 회원과 시민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성에서 더 나아가 영성을 바탕으로 한 운동여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운동과 자원지도자 및 운동가들의 실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YWCA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시 '공동체'다, 또 다시 '지역운동'이다. **이한나**

회원 YWCA 소식

북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제92회 정기총회



제92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에 열렸다.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143억 원을 통과시키고 이사 8명을 새로 선출했다. 2014년 서울YWCA 정책 추진과제는 '평화통일',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 '탈핵', '성 인지', '여성폭력 예방', '돌봄 노동권 확보'다.

'계란등급제도 현황과 과제' 간담회

서울Y는 1월 8일 전문가와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란등급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Y의 계란등급제도 관련 의식·실태 조사,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의 계란등급제도 국내외 사례 연구 조사를 보고했다.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관계자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관계자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인천YWCA 이한나 간사

제44회 정기총회 및 이사 은퇴식

제44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회원 150명이 모인 가운데 신임이사와 공천위원을 선출하고 평생회원패와 회원중모 우수상, 10년 봉사상, 20년, 10년 근속상, 모범직원상, Y-틴·대학Y 임원표창, 봄내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2013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심의를 마쳤다. 아울러 14년간 봉사하신 강정연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축하하였다.

재미있는 민주주의

인천Y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7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국회의 기능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천Y는 '재미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을 기대한다.

강릉YWCA 박지윤 간사

제26회 정기총회



제26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13년 결산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통과 시키고 신임이사, 재신임이사, 공천위원을 선출하였다. 강릉Y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자원지도자들과 함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 한 해를 기대한다.

신년하례회

강릉Y는 1월 16일 강릉지역 교계관계자, YWCA자문위원, 국회의원, 여성의원, 각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2014년 신년하례

회를 가졌다. 강릉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상천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고문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강릉Y가 탈핵 에너지 실천 운동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릉지역 교회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했다.

원주YWCA 김병남 감사

제47회 정기총회



원주Y는 1월 23일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내빈과 이사, 실무자, 회원 100명이 참석하여 2013년 결산과 2014년 사업계획 심의를 했다. 또한 회장 이·취임식과 공로패 전달식이 있었고 7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어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였다.

10기 살림돌보미 신규교육

원주Y 돌봄과 살림에서는 1월16일부터 17일까지 살림돌보미 신규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가사 서비스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14명의 수요자를 배출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춘천YWCA 진소정 차장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춘천Y는 1월 28일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감사패와 근속상,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사업결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8명의 신임이사가 선임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직업개발부 송년의 밤

춘천Y는 지난 12월 19일 돌봄과 살림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송년의 밤을 진행했다. 송년예배와 레크리에이션 진행 후 제 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 이희호 여사의 쌀 기증으



로 춘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증정식을 했다. 또한 모범돌보미들에게는 꼬박꼬박상, 을 시상하고 살림돌보미 동굴레회원의 후원금 전달식도 하였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제25회 정기총회



제25회 정기총회가 1월 25일 정회원 81명 준회원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3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와 사업보고를 하고 201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및 신임이사와 공천위원을 인준했다. 이어 2014년 회원증발대식도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5명의 신임이사, 5명의 공천위원이 인준되었다.

청소년지역사랑봉사대

고양Y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YWCA 탈핵, 나 우리 에너지운동'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지역사랑봉사대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에게 원전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교육 후 탈핵캠페인을 준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탈핵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였으며, 식품방사능 오염도표시 및 방사능 기준치 하향조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남양주YWCA 이종은 감사

제18회 정기총회

남양주Y는 1월 21일 제1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과 예산 등을 보고했고 2013년 남양주Y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58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회원의 밤

남양주Y는 지난 12월 10일 회원의 밤을 열었다. 돌보미 선생님들과 후원 회원들을 초대하여 매년 진행되는 송년 행사로 회원 및 이사, 위원, 실무자들의 노래자랑 및 사례 발표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부천YWCA 이지원 감사

제17회 정기총회



제17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13년도 감사보고, 사업보고, 돌봄협동조합 시범Y 평가보고에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3명의 신임이사가 있었다. 총회에 참석한 중경회장, 이사, 회원, 실무자가 2014년 결의를 다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부천Y 돌봄 조직 '한사랑회' 정기총회

부천Y 돌봄 조직 '한사랑회' 첫 번째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사랑회 자치회의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37명의 돌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원 투표에서 가사돌보미 회장 김영숙, 부회장 임영란, 산모돌보미 회장 김숙환, 부회장 안경옥 회원이 선출되었다. 처음 진행된 총회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만큼 더 성장해 나갈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원YWCA 정지영 감사

제45회 정기총회



수원Y는 1월 23일 10시 30분부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3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또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45주년 기념 바자회를 열었으며 해당 수익금은 지역의 독거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쓰일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감사

제29회 정기총회



안산Y 제29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개최되었다.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공천위원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다. 9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안산Y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환경동아리 참살이와 함께 하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자원봉사 소양교육, 대안생리대 만들기, 재활용 DIY, EM 비누만들기, 생태 북아트 등 기후변화와 에너

지를 주제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제28회 정기총회
제28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개최되었다. 감사장, 봉사상, 회원증모상, 우수직원상 시상과 선교비, 장학금,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2013년 감사·결산·사업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회원의 대표인 이사를 공천하는 이사 10명과 5명의 공천위원에 대한 인준과 임명장 수여, 선서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Y는 2014년 YWCA다운 운동, YWCA회원다운 실천으로 힘찬 한해가 되길 다짐하였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의정부YWCA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의정부Y는 1월 14일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직장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날 의정부 부시장, 경기도의장, 의정부시의원 및 유관기관 관장 및 담당자, Y이사·위원,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부

대전YWCA 김지찬 간사

제66회 정기총회
대전Y는 1월 22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2014년 총회를 통해 이사 9명, 공천위원 7명이 인준되었으며, 대전Y를 후원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패, 이사·위원에게 봉사상, 20년과 10년 근속을 한 직원들에게 근속상을 수여하고 돌봄클럽 자녀에게 대전YWCA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Y는 1월 22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2014년 총회를 통해 이사 9명, 공천위원 7명이 인준되었으며, 대전Y를 후원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패, 이사·위원에게 봉사상, 20년과 10년 근속을 한 직원들에게 근속상을 수여하고 돌봄클럽 자녀에게 대전YWCA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제49회 정기총회
제49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13년 사업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주Y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임이사와 재신임이사 및 공천위원을 선출하였으며, 10년 이상 봉사상과 10년 근속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명예이사 추대와 추천된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어 조규숙 회장, 지옥정·김옥순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회원 150명이 참석했다.

토마토인문학교



청주Y 청소년위원회는 1월 18일 '역사와 인문학'을 주제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12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련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의 투쟁과정을 살펴보고 애국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즐거운 방학교실
충주Y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충주 지역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즐거운방 학교실을 운영했다. 참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부진한 과목 지도와 예체능 활동, 급식이 제공되었으며 외가집 체험과 이상한 마법학교 체험을 하였다.

논산YWCA 김화선 팀장



제13회 정기총회
제13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13년도 운동 및 사업보고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 결산보고, 공천위원, 이사 인준 및 2014년 사업계획 심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총회 이후 행운권 추첨 및 저녁식사로 회원들과 교제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한국YWCA 6대 정책에 맞는 운동과 사업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제24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24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1월 23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있었다. 천안Y에서 3년간 헌신하신 김태년 7대 회장 이임과 8대 회장 김경순 회장이 취임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김태년 회장과 서선하 전 사무총장, 유현옥 전 선임팀장이 공로패를 수상하고 간병회장 임철순, 환경강사 최민희, 여성인력개발센터강사 문남희,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고기숙 위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겨울방학특강



천안Y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등생을 위한 '애들이 놀면서 공부하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활용교실(1차시), 독서

교실(2차시), 미술교실(3차시), 환경교실(4차시)로 진행했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제85회 정기총회
광주Y는 1월 21일 제8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평생회원패, 후원단체증을 비롯하여 감사패 및 봉사패 수여식이 있었으며 직전회장인 이옥식 이사가 명예이사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3년 사업결산 및 승인, 2014년 사업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투표결과를 보고한 후 새로 선출된 이사(10명) 및 공천위원(5명)들은 헌신예배를 통해 이사·공천위원선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350여명이 참석했다.

제26회 Y-틴 포래들의 한마당 '불우청소년 돕기 음식 바자회'
광주Y는 1월 25일 광주Y대강당에서 제26회 Y-틴 포래들의 한마당 '불우청소년 돕기 음식 바자회'를 열었다. Y-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된 바자회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저소득가정 대청소 물품 후원 등의 기부활동을 해오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 해오고 있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제22회 정기총회
남원Y는 1월 21일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한 공로로 봉사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나눔



전주Y 전북하나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1월 22일 도내 북한이탈주민 150여 가정에 '설 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 고향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의 정을 나누고자 뜻을 같이 하며 후원해 준 곳은 전주Y 통일부(이불 100개), LX대 한지적공사(내의 55개),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쌀 10kg 55포)이다.

익산YWCA 정아영 간사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제5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익산Y는 지난 12월 2일 고현교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40여명의 익산YWCA합창단원들의 합창, YMCA합창단의 특별출연, CCM 가수 동방현주의 공연이 있었다. 익산시 지원으로 이루어진 익산Y 정기연주회는 시민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500여명의 시민들과 5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했다.

목포YWCA 박수현 부장

제68회 정기총회 목포Y는 1월 2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3년 결산과 사업보고, 2014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



다. 이어 신임이사와 공천위원 인준과 선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3년 회원증모우수자들에게 대한 시상도 있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목포Y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품질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홈페이지 게재 및 최우수기관 현판을 받는다. 3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품질평가는 학계 및 연구기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42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대하여 9월 2일~ 10월 4일까지 현장평가, 자체평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항목은 현장평가와 이용자 의견조사로 구성되어 평가결과를 산정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순천YWCA 김사라 간사

사랑나눔 바자회 순천Y는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순천시청 별관에서 사랑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 전액은 보호작업장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여수YWCA 김주란 간사

제32회 정기총회 제32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열렸다. 감사패와 봉사상 수여식, 회원증모우수자와 근속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후 2013년 각부 결산 및 사업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공천위원 인준, 이사·공천위원 선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올 한해 여수Y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탈핵운동'을 주력운동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제47회 정기총회 제주Y는 1월 22일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8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故김대복 회장 추모의 시간 이후 2014년 인준이사 위촉, 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모범 회원상 시상, 2014년민들레회원증모우수상, 클럽인준 등을 진행하였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한 전 회원과 오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제22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서귀포Y는 1월 23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제22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서귀포Y 임원 선출과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위한 사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 사업보고를 했다. 2012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역임한 전희순 회장이 이임하고 김신숙 회장이 취임하였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2014년 설 맞이 떡국 지원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구Y 노인복지센터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설 음식으로 떡국떡과 봉사자들이 직접 조리한 각종 고향음식을 드렸다. 이번 명절 음식나누기에는 여러 후원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 옹진 CL5지역본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음식을 만들고 어르신 맥에도 방문하여 전달했다. 나눌 수 있어 행복한 대구YWCA노인복지센터, 섬김을 받아 행

복한 어르신이 더욱 많아지는 2014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YWCA 하경량 간사

제69회 정기총회 제69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1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2014년을 새롭게 섬길 이사 10명과 공천위원 5명을 선출했다. 기독여성의 사회적 책임과 부산YWCA 지도자 및 실무자의 사명 의식과 헌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신년하례회 울산Y는 1월 8일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울산Y를 후원하는 지역 내 목회자, 자문위원, 지역단체장이 모여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제34회 정기총회 제34회 정기총회가 1월 22일 열렸다. 2013년 사업보고, 2014년 사업계획과 감사 보고,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거제Y는 거제시여성회와 공동대표로 거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을 위해 지난해 노력해왔다. 다시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제시민들의 뜻을 모아 1월 17일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제23회 정기총회

제23회 정기총회가 1월 22일 열렸다. 2013년 사업을 영상으로 보고한 후 감사, 결산보고를 하고, 만기이사 3명, 신임이사 6명과 공천위원 6명을 인준하였다. 이어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Y를 위해 봉사하고 후원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바우처투자사업 - 부모학교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3년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부모학교 서비스-행복한 맘, 건강한 홈'이란 주제로 부모상담 교육을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부모역할훈련(PET), 대상관계부모훈련(ORPT), 교류분석부모교육(TAPT), 감정코칭, 가족캠프 등 1년간 부모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마산Y 어린이집 발표회

마산Y 어린이집에서 1월 9일 마산Y 강당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어린이들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춤 실력을 선보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제26회 정기총회

제26회 정기총회가 1월 24일 열렸다. 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하였다. 사천Y는 한국 Y 6대 과제에 따라 지역사회에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캠페인

사천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월 22일 사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등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제8회 정기총회

양산Y는 1월 23일 15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3년도 사업보고와 2014년도 부

별 사업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공로상에는 박흥진 강사, 봉사상에는 황정순 회원이 수상했다. 그리고 부회장에는 허영



미 이사, 신임이사에는 김유라 회원이 당선되었다. 양산Y는 나눔과 돌봄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을 펼치고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의 정착, 취약한 여성 권익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진주YWCA

조현진 간사

제36회 정기총회

제36회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감사보고, 2013년 사업과 결산 보고, 2014년 사업안과 예산안 승인, 이사와 공천위원 선거와 선서가 있었다. 이어 점심식사 하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진주Y는 지역사회에서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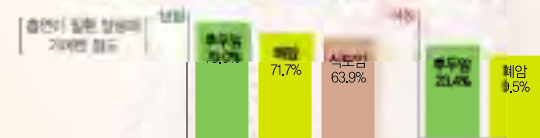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진주Y는 지역 단체들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월 21일 경남과기대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익중 교수(동국의대)와 진현극 대표(경남연대)가 방사능물질과 수산물 안전, 안전한 학교급식 방사능조례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진주시의원, 소비자단체활동가, 학부모 등의 토론자들이 함께 하여 각 영역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진주Y가 상임대표(박영선 사무총장)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담배연기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하겠습니다.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8,000명
-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 여성 폐암 환자 27%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 흡연부부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 5.7배, 폐렴 발생률 2배 높음

!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 흡연으로 인하여 한 해 약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 추가 발생

※ 한 해 흡연 손실금액 약 1조 7천억 원은?
 - 국민 전체 한 달치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제외)이며
 - 6개월 이상 가입한 국민 1,732만명, 세입 보험료의 57%금액으로, 취약계층 생리를 구제 할 수 있고
 - 선대진료 특스와 긴급방실 급여화가 가능하며
 - 4대 응급실원을 추가 부담없이 보상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흡연자는 담배 한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 하고 있으나, 직장 단체회사는 한 해 수천 억원의 수익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국민은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정 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